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 형식(Format) 비교 연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합동토론회를 중심으로

송종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본 논문은 2002년 대통령후보초청 TV합동토론회에서 채택된 토론형식(Format)을 비교·평가하였다. 현재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의 후보초청TV토론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러나 토론위원회가 방송사와 후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토론형식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많은 제한이 많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토론위원회는 후보자간의 1:1 토론과 후보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이를 통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자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후보자들이 정책토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후보자간의 직접충돌이 허용되는 토론형식은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토론형식이다. 분석결과 역시 새롭게 도입된 토론형식이 기존토론형식 보다 나은 토론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작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2002년 대통령선거, 대통령후보TV합동토론, 토론형식 평가,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초청TV토론이 도입된 이래, 대통령 후보 TV토론형식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TV토론은 개최되는 시기에 따라 초청대상과 토론주관자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형식에 대한

* jsong@kbi.re.kr

논의는 조금씩 다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시기에는 방송사들이 개별토론과 합동토론을 함께 이용하고 있고 대통령후보 선출이후 부터 공식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개별토론만 개최하고 있다. 공식선거 운동기간 중에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토론이 열리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대통령후보TV토론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열리는 합동토론이 유일한 셈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열리는 합동토론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치행사임에 틀림없다. 실제, 이 기간 중의 합동토론은 이전에 개최되었던 TV토론과 비교할 수 없는 시청률을 보여준다. 2002년 대통령후보합동토론의 시청률은 비록 1997년 대통령선거때에 비해 낮았지만 세차례의 토론 모두 30%대의 시청률을 보였다. 이는 전체 유권자들이 한번은 합동토론을 시청하였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 같이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 개최되는 후보합동토론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전략에 가장 유리한 토론형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토론형식을 원한다(Martel, 1983). 방송사들은 시청률과 편성이라는 한계를 제기하며, 토론진행방식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 같은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길 원한다. 토론회의 주관자는 이들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1997년 대통령선거에 TV토론을 도입한 이후,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는 토론형식에 대한 후보진영의 큰 반발 없이 개최되어 오고 있다. 토론위원회가 토론형식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자율적이다.

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합동토론을 1997년 대통령선거때와 다른 두가지 토론방식을 도입하였다. 먼저, 후보자간의 1:1 토론형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토론회 주제영역 내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게 하였다. 토론위원회는 이 같은 토론방식을 통해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간의 토론기회를 제공하고 후보간의 정책쟁점토론을 유도함으로써 3자토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회의록, 2002. 11). 그러나 후보간의 직접충돌형의 토론형식은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정책 중심의 토론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토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Kay, 1981; Schroeder, 1989; Swerdow, 1984; Song 2000).

2002년 각 당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 개최된 후보 TV토론을 분석한 연구결과(송종길, 안수근, 2002)에 따르면 후보자간의 1:1 토론은 3자토론 보다 긍정적인 토론내용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토론위원회의 기대와 후보자들의 실제 이용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고는 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후보합동토론회에서 이용된 토론형식들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는 후보간의 직접충돌형식의 토론을 확대하고 양자토론과 질문을 자유롭게 준비하게 하는 새로운 토론방식의 도입이 기존의 방식 보다 나은 토론내용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사실, 토론형식을 평가하는 작업은 다음 토론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토론형식을 평가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대통령후보TV토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론형식을 채택하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형식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사후 평가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¹⁾. 특히, 사전에 충분한 평가작업 없이 도입된 후보자간 1:1 토론형식은 객관적인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 같은 평가작업은 다음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형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1) 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개시 60일전에 구성되었으며, 이후 토론참가후보의 자격기준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냄으로써 토론형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이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사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공직후보 TV합동토론행식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직후보TV토론에서 이용되고 있는 합동토론행식은 몇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제 토론에서는 이들 유형이 혼용되거나 변형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질문의 주체에 따라 토론행식이 구분되는데, ‘공동기자회견형 (Joint press conference)’ ‘후보자간 직접토론행’ ‘시민포럼형(Town hall meeting)’이 있다. 이 같은 토론행식들은 질문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의 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공동기자회견형’은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에서 기본 골격이 갖춰진 후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이후 미국 대통령후보 TV토론의 전형처럼 여겨져 왔다. 이 토론행식은 사회자와 저널리스트 중심의 패널들이 질문자로 참여하였으나 1996년 대통령후보토론에서부터 사회자 1인이 질문하는 방식만 채택되고 있다. 질문은 사회자(미국의 경우) 혹은 토론주관단체(한국의 경우)가 사전에 준비한다. 이 토론행식은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토론에 대처하는 후보자의 순발력과 인간성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토론행식은 단답형의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될 경우 논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불공정하고 적절치 못한 질문들이 토론의 질(quality)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후보자들이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되는 선거용 정책과 입장을 인용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Jamieson, 1987; Key, 1983; Pfau, 1983a).

후보자간 직접토론(충돌)형은 1974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처음 사용된 토론행식이다. 후보자간 직접충돌형은 후보자간 상호 비교가 가장 용이하고 활발한 논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의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토론이 되기보다는 인신공격 혹은 상호비방적인 토론내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Schroeder, 1989, Swerdow, 1984, 송종길, 안수근

2002). 또한 후보자들이 질문을 준비하고 이를 질문하는 경우 토론내용과 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관심사항만을 토론의제로 다룰 가능성도 높다. 후보간 직접충돌형은 후보자들이 TV 토론을 자신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토론형식이다. 한편, 직접 토론형식이 갖는 장, 단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고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후보간의 직접충돌형의 토론형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토론형식이며, 대통령후보간 TV토론에서는 한번도 채택된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시민포럼형(town hall meeting)’은 1992년 미국 대통령후보TV 토론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토론형식은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후 상호 토론하는 방식이다. 이 토론형식은 새로운 토론형식으로 이미 오래 전에 제안되었던 것이었지만 후보들이 선호하지 않았다. 이 토론형식은 클린턴이 자신의 토론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토론형식으로 부시에게 제안한 것으로 여론지도에서 뒤지고 있던 부시가 받아들인 것이다(Kraus, 2002). 1992년 대통령선거 이후 시민포럼형은 전형적인 TV토론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토론형식은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청중으로 선정된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지후보를 미리 정한 대부분의 일반 유권자, 즉 공중(public)을 대변하지 못하고 각 후보자들을 동등하게 다루지 못할 수 있어 오히려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Friedenberg, 1994). 그러나 이 토론형식은 미국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시민들은 시민포럼형 토론이 다른 토론형식에 비해 후보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 기피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Carlin & McKinney, 1994, Carlin, 2002). 국내에서는 시민포럼형토론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KBS가 개최한 국민포럼이라는 토론회가 처음이다. 토론회는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토론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지만, 합동토론이 아닌 개별 토론형식이었다.

2) 2002년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합동토론회

(1) 토론형식(format)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는 3가지 서로 다른 토론형식이 이용되었다. 먼저, 사회자가 각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사회자 질문 1:1:1 토론형식, 후보들이 사전에 2개씩 주어진 주제영역에서 질문을 미리 준비한 뒤 타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후보질문 1:1:1 토론형식, 마지막으로 후보들이 토론의제 내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준비한 뒤 각 후보에게 일대일 질문하고 답하는 후보질문 1:1 토론형식이 있었다. 후보질문 1:1 토론형식은 2002년 대통령후보 합동TV토론회에 새로 도입된 토론형식이다. 이번 합동토론은 후보질문 1:1 토론형식이 도입되어 후보자에 의한 질문이 전체질문의 2/3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7년의 경우, 후보자에 의한 질문과 사회자에 의한 질문이 1/2씩이었다.

<표 1> 2002년 대선 후보자 합동토론회(12월)의 토론형식

횟수	일자	토론형식	질문자	질문주제 사전고지 여부	토론의제
1차	12. 3	사회자질문 1:1:1 토론	사회자	토론위원회가 고지 없이 준비	정치/외교/ 통일
		후보질문 1:1:1 토론	후보	토론위원회가 세부 2개 영역 고지	
		후보질문 1:1 토론	후보	후보자 자유선택	
2차	12.10	상동			경제/과학
3차	12.16	상동			사회/교육/문화/여성

3) 토론형식 평가와 연구문제

토론형식을 평가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1960년 이후 대통령후보TV토론을 제도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오랫동안 사회자와 패널들이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후보자간에 상호 토론하는 공동기자회견형의 토론방식이 전형

화 되어 왔기 때문에 토론형식을 비교하는 연구는 불가능하였다. 1992년 대통령선거부터 새로운 토론형식(시민포럼형과 사회자 1인이 질문하는 공동기자회견형 토론형식)들이 도입되고, 새롭게 도입된 토론형식들이 대통령 후보 TV토론의 전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토론형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토론형식을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양하다. 파우(Pfau, 1983)는 TV토론은 토론내용의 질(quality)로 평가된다면서 토론내용에서 얼마나 많은 대결(clash, confrontation)이 존재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많은 연구(Carlin, Howard, Stanfield, & Reynolds, 1991; Ellsworth, 1965; Prentice, Larsen, & Sobnosky, 1981; Riley, Hollihan, & Cooley, 1980; Riley & Hollihan, 1981)들이 이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 후보TV토론을 평가하였다. 로랜드(Rowland, 1986)와 맥나브(McNabb, 1993)는 답변내용을 초점(정책, 이미지), 수준(완전한 답변, 부분적 답변, 답변 없음), 근거(evidence)의 제시 여부에 따라 후보자 답변의 질(quality)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후보자간의 직접 질문과 후보자들이 질문을 준비하고 직접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변수들은, 앞서 살펴본 것들이 토론의 결과물 즉, 토론의 생산물인 토론의 내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다. 누가 질문하고, 질문은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토론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Song, 2000; 송종길, 안수근, 2002).

본 연구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토론형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토론내용의 질(quality)를 평가한다. 토론형식에 따른 토론내용의 평가는 결국 토론내용을 만들어 내는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1> 토론형식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준비된 질문들이 후보자들에게 던져졌다. 사회자 1:1:1 토론형식에서는 토론주최측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문, 후보자 1:1:1 토론형식에서는 토론위원회가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제시한 소주제²⁾ 내에서 후보자들이 준비한 질문, 마지막

으로 후보자 1:1 토론형식은 토론회 의제³⁾ 내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준비한 질문들이 있었다. 이 같이 질문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연구문제 1-1> 질문의 정책관련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질문의 명확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질문의 적합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4> 질문의 충실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5> 질문의 심층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6> 질문의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토론형식에 따라 후보자간의 토론방식이 달랐다. 즉, 사회자를 통한 토론으로 후보자간의 직접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공동기자회견 형인 사회자 1:1:1 토론형식)과 후보자간의 직접 충돌형(3자 토론형식, 일대일 토론형식)이 있었다. 이 같이 토론형식의 차이에 따라,

<연구문제 2-1> 응답의 정책관련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응답의 적합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3> 응답의 충실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4> 응답의 심층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5> 응답의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

3. 분석방법

1) 분석 단위와 분석절차

질문과 응답을 분석단위로 설정했으며 코딩과 분석은 질문과 응답을 분

- 2) 1차 토론의 경우, 정치/외교/안보/통일이 토론의제였으며, 정당개혁, 부정부패척결이 소주제였다.
- 3) 1차 토론의 경우, 정치/외교/안보/통일이 토론의제였다.

리하여 실시하였다. 질문의 경우, 토론순서에 따라 사회자와 후보자에게 질문순서로 주어진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질문으로 분류하였다. 응답 역시 토론순서에 의해 답변, 반론, 재반론의 기회가 주어진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응답으로 코딩하였다. 질문과 응답 도중 사회자 혹은 후보들에 의해 말이 끊긴 다음 다시 질문 혹은 응답이 계속된 경우에도 1회의 질문 혹은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코딩은 본 연구의 목적과 코딩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받은 언론학 전공의 3명의 대학원생들이 수행하였다. 사전조사(pre-test)를 통해 나타난 코더간 신뢰도(Holsti, 1968)는 92%⁴⁾였다.

2) 분석유목

분석유목들은 송종길(2002), 이종수(1997, 2002), 맥나브(McNabb, 1993), 로랜드(Rowland, 1986)의 연구에서 이용된 분석유목들을 이용하였으며, 일부 분석유목은 본 연구를 위해 수정하였다.

(1) 질문 분석유목

① 정책관련성

질문주제에 따라 ① 정책 ② 정치적 이슈 ③ 후보자 개인으로 구분하고 질문의 주제에 관계없이 질문의 의도에 따라 ① 정책 토론(정책토론에 초점을 둔 질문) ② 이미지 제고(상대후보 혹은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질문)으로 재분류하였다.

② 명확성

주어진 짧은 시간동안 후보자들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질

4) 다음과 같은 Holsti의 공식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R = \frac{2(C1,2)}{C1 + C2}$$

문이 복합적이지 않아야 한다. 질문의 명확성은 ① 질문이 한가지 주제에 대해 묻는 질문 ② 두가지 주제 이상을 묻는 복합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③ 적합성

주어진 토론주제영역에 적합한 질문을 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질문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① 적합한 질문(주어진 주제영역에 적합하고 질문이 완결된 형태) ② 부적합한 질문(주어진 주제영역을 벗어난 질문, 주어진 주제영역과 관련한 내용일지라도 질문의 형태로 마무리하지 못한 질문, 자신의 의견 혹은 주장을 하기 위해 질문시간을 이용한 경우)으로 구분하였다.

④ 구체성

질문의 구체성은 질문의 논리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근거 혹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문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①근거 자료 제시, ②근거 자료 없음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거나 견해 혹은 사실을 인용하는 경우(예: 000는 당신을 ***라고 칭했다, 00신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00%라고 한다)에 근거 자료 제시 응답으로 분류되었다.

⑤ 심층성

질문의 심층성은 질문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①사실 확인 ②구체적 설명 요구 ③평가/견해 요구 ④정책/방안 요구로 구분했다. 사실 확인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나 개인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설명 요구는 어떤 사건이나 내용(정책), 소문, 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평가/견해 요구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구하기 위한 질문, 정책/방안 요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 등으로 구분되었다.

(2) 응답 분석 유목

응답의 정책관련성과 구체성은 질문분석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같이 사용하였다.

① 적합성

주어진 질문 혹은 반론/재반론을 하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해, 응답수준을 ① 완전한 응답(질문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응답한 경우) ② 부분적 응답(질문의 일부분에 응답한 경우) ③주제에 벗어난 응답(질문에 벗어난 응답 혹은 전혀 답하지 않은 경우)으로 구분하였다.

② 심층성

심층성은 응답내용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유목으로 하위 항목을 ① 사실 확인(어떤 사실이나 사건,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나 개인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 응답) ②설명(어떤 사건,이나 내용 혹은 정책, 소문, 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하는 응답), ③평가/견해 제시(설명 수준을 넘어 해석, 평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응답) ④ 해결방안/정책제시(구체적인 해결방안 혹은 정책을 제시하는 응답)로 세분했다.

③ 질문과 응답 공통 분석 유목

가. 공격성

질문과 응답 가운데 타 후보를 공격하는 정도를 분석했다.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언어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공격성이 있는 응답으로 코딩되었다.

4. 분석 결과

토론형식별 질문과 응답 수는 <표 2>와 같다. 토론형식별 각각 18개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토론형식별 응답 수는 사회자 1:1:1 토론형식에서는 72개의 응답, 후보자 질문 1:1:1 토론에서는 90개의 응답, 후보자 질문 1:1 토론에서는 54개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표 2> 토론방식별 질문/응답수

토론형식별 질문수				토론형식별 응답수			
사회자 질문 1:1:1	후보자 질문 1:1:1	후보자 질문 1:1	계	사회자 질문 1:1:1	후보자 질문 1:1:1	후보자 질문 1:1	계
18	18	18	54	72	90	54	216

1) 질문 분석결과

<연구문제 1-1> 질문의 정책관련성에 차이가 있는가?

질문의 초점을 분석한 결과, 각 토론형식들은 정책중심의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론형식별로 볼 때, 정치적 이슈와 후보자 개인에 초점을 둔, 공방성의 질문이 나타나는 비율은 차이가 크다. 후보자질문 1:1 토론형식에서는 44%가 정책질문이 아닌 질문이었다.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질문(사회자 질문)에서도 도청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정치적 이슈로 분류되었다.

질문초점과 관계없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자질문 1:1:1 토론형식에서는 18개의 질문이 모두 정책토론을 위한 질문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후보들이 질문을 선택한 후보자질문에서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의 질문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후보자 질문 1:1 토론형식에서는 후보들의 이미지(50%)와 관련된 질문과 정책(50%) 질문수가 같다. 토론형식에 따라 질문의 정책관련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토론형식별 질문의 초점(%)

구분	질문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정책	17 (94.4)	13 (72.2)	10 (55.6)	40 (74.1)
정치적이슈	1 (5.6)	3 (16.7)	6 (33.3)	10 (18.5)
후보자개인	0 (0)	2 (11.1)	2 (11.1)	4 (7.4)

<표 4> 토론형식별 질문의 의도(%)

구분	질문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정책논의	18 (100)	15 (83.3)	9 (50)	42 (77.8)
이미지	0	3 (16.7)	9 (50)	12 (22.2)

<연구문제 1-2> 질문의 명확성에 차이가 있는가?

짧은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는 TV토론의 속성상 질문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 분석결과 흥미로운 사실은 사회자질문이 후보자질문보다 복잡한 질문이 많다는 것이다. 즉, 한가지 질문에 두가지 이상의 주제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사회자 질문에서는 “도청의혹에 대한 견해”와 “국정원 개혁 방안”을 묻거나, “동서화합”과 “중대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동시에 묻는 질문이다. 주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지만 질문을 받은 후보는 1분 30초의 답변과 1분의 재반론 시간이 주어졌을 뿐이고 타 후보들은 단지 1분간의 반론시간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두가지 주제에 대해 답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반면 후보자 1:1 토론은 양자 토론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한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표 5> 토론형식별 질문의 명확성(%)

구분	질문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한가지 주제	12 (66.7)	14 (77.8)	17 (94.4)	43 (79.6)
복합 주제	6 (33.3)	4 (22.2)	1 (5.6)	11 (20.4)

<연구문제 1-3> 질문의 적합성에 차이가 있는가?

질문이 주어진 주제 혹은 주제영역에 적합한 질문인지 분석한 결과, 후보자 질문 1:1 토론에서 주제에 부적합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후보자 질문 1:1:1 토론, 사회자 질문 1:1:1 토론 순이었다. 결국, 후보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준비하도록 허용하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다.

<표 6> 토론형식별 질문의 토론주제 적합성(%)

구분	질문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적합	18 (100)	17 (94.4)	13 (72.2)	48 (88.9)
부적합	0	1 (5.6)	5 (27.8)	6 (11.1)

<연구문제 1-4> 질문의 구체성에 차이가 있는가?

질문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의 근거의 유무를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근거제시형 질문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회자 질문에서 근거제시 없는 질문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후보자들이 준비한 질문들은 수치나 사례를 인용하는 근거제시형 질문들이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질문을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문이 보다 구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합동토론을 주관했던 토론위원회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가장 우선시 했던 점에 비추어 볼때, 사회자의 질문에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한 결과는 이 같은 환경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7> 토론형식별 질문의 충실성(%)

구분	질문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근거없는 질문	9 (50)	7 (38.9)	7 (38.9)	23 (42.6)
근거제시형 질문	9 (50)	11 (61.1)	11 (61.1)	31 (57.4)

<연구문제 1-5> 질문의 심층성에 차이가 있는가?

질문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질문의 심층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자질문들은 주로 정책/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심층적인 질문(72.2%)이 이루어진 반면, 후보자질문 1:1:1 토론에서는 주로 평가/견해를 요구하는 수준의 질문(50%)이 주를 이루고, 후보자 질문 1:1 토론에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38.9%)과 평가/견해를 요구하는 질문(27.8%)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자 질문이 보다 심층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토론형식별 질문의 심층성(%)

구분	질문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사실확인	0	1 (5.6)	2 (11.1)
설명	3 (16.7)	2 (11.1)	7 (38.9)
평가/견해	2 (11.1)	9 (50)	5 (27.8)
정책/개선방안	13(72.2)	6 (33.3)	4 (22.2)

<연구문제 1-6> 질문의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

토론형식별 타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도의 공격적인 질문이 나타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선 사회자 질문에서는 특정후보를 공격할 의도의 질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후보자들의 질문에 의해 진행된 토론에서는 높은 비율의 공격성이 나타났다. 특히 후보자질문 1:1 토론에서는 55.6%의 질문에서 공격성이 나타났다. 이는 후보자질문에 의한 토론이 상호공방에 치우친 토론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토론형식별 질문의 공격성(%)

구분	질문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공격있음	0	8 (44.4)	10 (55.6)	18 (33.3)
공격없음	18 (100)	10 (55.6)	8 (44.4)	36 (66.7)

2) 응답 분석결과

<연구문제 2-1> 응답의 정책관련성에 차이가 있는가?

응답 초점과 응답의 의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질문에 의한 토론이 가장 정책중심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후보자질문 1:1:1 토론, 후보자질문 1:1 토론형식 순이었다. 사회자질문에 의한 응답에서는 사회자 질문 가운데 1개 (5.6%)만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이었고 후보자 개인 관련 질문은 없었다. 그러나 응답에서는 이보다 높은 비중(18.1%)의 정치적 이슈와 후보자 개인 응답이 나타났다. 주제와 관계없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 논의 비중이 높아진다. 전체적으로 질문의 정책관련성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토론형식별 응답의 초점(%)

구분	응답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정책	56 (77.8)	58 (64.4)	25 (46.3)	139 (64.4)
정치적 이슈	13 (18.1)	18 (20)	18 (33.3)	49 (22.7)
후보자개인	3 (4.2)	14 (15.6)	11 (20.4)	28 (13)

<표 11> 토론형식별 응답의 의도(%)

구분	응답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정책논의	62 (86.1)	61 (67.8)	30 (55.6)	153 (70.8)
이미지	10 (13.9)	28 (31.1)	16 (29.6)	54 (25)
중립(정책이미지)	0	1 (16.7)	8 (14.8)	9 (4.2)

<연구문제 2-2> 응답의 적합성에 차이가 있는가?

주어진 질문에 얼마나 적합한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이 적합성 있는 응답(완전응답 55.6%, 부분적 응답 44.4%)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후보자질문 1:1:1 토론(완전응답 42.2%, 부분적 응답

55.6%), 후보자 질문 1:1 토론(완전응답 37%, 부분적 응답 48.1%) 순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제에 충실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주제에 벗어난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었다. 특히, 사회자질문 1:1:1 토론에서는 주제에 벗어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후보자질문 1:1 토론에서는 14.8%(8건), 후보자질문 1:1:1 토론 2.2%(2건)가 주제에 벗어난 응답이었다.

<표 12> 토론형식별 응답의 적합성(%)

구분	응답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완전한 응답	40 (55.6)	38 (42.2)	20 (37)	98 (45.4)
부분적 응답	32 (44.4)	50 (55.6)	26 (48.1)	108 (50)
주제에 벗어난 응답	0	2 (2.2)	8 (14.8)	10 (4.6)

<연구문제 2-3> 응답의 충실성에 차이가 있는가?

응답의 충실성은 응답내용의 논리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근거자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평가되었다. 사회자질문 1:1:1 토론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응답이 많았지만, 토론형식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응답(38%)보다는 근거자료 없는 응답(62%)이 많았다. 응답에서 사용된 근거자료 유형을 보면, 수치를 인용하는 사례가 57.1%로 가장 많았고, 특정사건 혹은 사례를 제시(22.2%), 전문가의 견해 혹은 문헌을 인용하는 응답(16.7%) 순이었다.

<표 13> 토론형식별 응답의 충실성(%)

구분	응답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근거자료 있음	34 (47.2)	30 (33.3)	18 (33.3)	82 (38)
근거자료 없음	38 (52.8)	60 (66.7)	36 (66.7)	134 (62)

$\chi^2=3.932$ $df=2$, $p>.01$

<표 14> 토론형식별 근거자료 유형(%)

구분	응답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수치제시	20 (57.1)	17 (54.8)	11 (61.1)	48 (57.1)
견해인용	8 (22.9)	2 (6.5)	3 (16.7)	13 (15.5)
특정사례, 사건 제시	7 (20)	12 (38.7)	4 (22.2)	23 (27.4)

<연구문제 2-4> 응답의 심층성에 차이가 있는가?

토론형식별 응답의 심층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자 질문에 의한 토론이 가장 심층적인 응답, 즉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응답(61.1%)이 많았고, 후보자질문 1:1:1 토론(43.3%)과 후보자 질문 1:1 토론(42.6%)은 평가/견해를 제시하는 응답 중심이었다. 후보자 질문 1:1 토론은 낮은 수준의 응답(사실확인과 설명)에서 가장 높은 비율(37.1%)을 보였다. 반면, 사회자질문 1:1:1 토론(11.2%)과 후보자질문 1:1:1 토론(20%)은 비교적 낮았다.

<표 15> 토론형식별 응답의 심층성(%)

구분	응답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사실확인	4 (5.6)	9 (10)	3 (5.6)	16 (7.4)
설명	4 (5.6)	9 (10)	17 (31.5)	30 (13.9)
평가/견해	20 (27.8)	39 (43.3)	23 (42.6)	82 (38)
정책/개선방안	44 (61.1)	33 (36.7)	11 (20.4)	88 (40.7)

$\chi^2=34.169$, $df=6$, $p<.01$

<연구문제 2-5>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

토론형식별 응답의 공격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문의 공격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높은 공격성(55.6%)을 보였던 후보자질문 1:1 토론형식이 응답의 공격성에서는 후보자질문 1:1:1 토론형식(46.7%)보다 낮은 공격성(37%)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자 질문 1:1:1 토론형식은 질문에 서는 공격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응답분석에서는 33.3%의 비교적 높은

공격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질문에는 공격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후보들은 응답을 통해 언제든지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6> 토론형식별 응답의 공격성(%)

구분	응답			계
	사회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1	후보자질문1:1	
공격있음	24 (33.3)	42 (46.7)	20 (37)	86 (39.8)
공격없음	48 (66.7)	48 (53.3)	34 (63)	130 (60.2)

$\chi^2=3.199$ $df=2$, $p>.01$

5. 논의 및 결론

토론내용의 질(quality)을 질문의 질과 응답의 질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토론형식별로 나타난 질문과 응답의 평가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각 분석유목별로 나타난 결과를 단순 순위를 매겨 보았다(<표 17>).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질문내용 분석 결과와 응답내용 분석결과간의 관련성이 높다. 질문의 정책관련성, 적합성, 구체성, 심층성의 분석결과가 응답 내용의 분석결과에서도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질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응답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7> 토론 형식별 질문/토론 분석결과

구분	질문						응답				
	정책 관련성	명확 성	적합 성	구체 성	심층 성	공격 성	정책 관련성	적합 성	구체 성	심층 성	공격 성
사회자질문 1:1:1 토론	1	3	1	1	1	3	1	1	1	1	3
후보자질문 1:1:1 토론	2	2	2	2	2	2	2	2	2	2	1
후보자질문 1:1 토론	3	1	3	2	3	1	3	3	2	3	2

토론형식별 내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형식을 평가하면, 우선 사회자가 토론위원회에서 준비한 질문을 사용해서 3자간에 토론을 벌였던 ‘사회자질문 1:1:1 토론형식’은 질문의 ‘명확성’이라는 분석유목을 제외한 모든 분석유목에서 다른 토론형식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록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자질문 1:1:1 토론형식’은 많은 복합질문(33%)이 이루어졌다. 토론위원회가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명확한 형태의 질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후보자들이 준비한 질문 보다 2개 이상의 주제에 질문을 하는 복합질문이 많이 나타났다. 후보자들이 토론위원회에서 정해진 소주제내에서 질문을 준비하고 후보자들간 직접 질문하고 토론했던 ‘후보자 질문 1:1:1 토론형식’은 응답의 ‘공격성’이라는 분석유목을 제외한 모든 분석유목에서 ‘사회자질문 1:1:1 토론형식’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후보자들이 토론회별로 주어진 토론의제(1차 토론의 토론의제는 정치/외교/안보/통일이었다) 내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준비하고 3자 토론이 아닌 양자토론을 벌였던 ‘후보자질문 1:1 토론형식’은 대부분의 분석유목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다. 질문의 ‘공격성’은 가장 높았던데 반해 응답의 ‘공격성’은 ‘후보자질문 1:1:1 토론형식’보다 낮았다.

토론형식별 분석결과에서처럼, 후보자들에게 자유롭게 준비한 질문들은 가장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토론위원회의 의도와 달리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둔 질문이 가장 많았고, 주제에 적합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후보간의 1:1 토론의 도입으로 후보자질문을 전체질문의 1/2에서 1/3으로 줄은 것도 전체적으로 질문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자간의 토론형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간의 1:1 토론형식을 도입한 것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응답내용 분석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1 토론은 가장 많은 분석유목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새로 도입한 ‘후보자 1:1 토론형식’은 후보자들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정치공방을 벌이는데 가장 용이한 토론형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후보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준비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회자질

문 1:1:1 토론형식'에서처럼 토론위원회가 소주제를 정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직접충돌형의 토론형식을 확대한 것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간의 직접충돌형을 계속 채택하는 경우,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선거전략에 따라 토론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주제에 벗어난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자는 토론시간과 순서를 확인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내용을 듣고 판단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짧은 시간 내에 주제에 벗어났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자칫 형평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사회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들이 토론회 진행을 모니터하면서 사회자에게 조언하는 방식도 있다.

현재의 토론형식을 유지하는 경우, 몇 가지 개선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토론내용의 정보성이 강화되기 위해 주어진 주제 내에서 사회자와 토론자가 추가질문(follow-up question)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2년 대통령후보토론⁵⁾에서 처음으로 추가질문이 허용되었는데, 추가질문은 토론내용의 정보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질문은 답변자에게 직접적이고 완전한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답변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 준다.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은 상대후보의 견해를 반박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입장이 상대후보와 어떻게 다른지 보이도록 만들어준다(Twentieth Century Fund, 1995, p.103-105).

또한 토론주제별 시간 총량제를 통해 후보자들이 탄력적으로 시간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많은 질문 수는 줄여야 한다. 또한 주제별 혹은 전체토론회 동안 일정횟수의 추가발언 혹은 질문 기회를 주는 방안이 있다. 또한 제한된 횟수의 연속발언기회를 제공함으로써

5) 그러나 추가 질문은 후보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패널리스트들에 의한 질문에서는 추가질문이 허용되지 않았다.

써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사실 이 방안들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내경선TV토론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토론방식이다(송종길, 2002 참조).

이미 오랫동안 대선TV토론을 선거제도로 발전시키고 있는 미국에서는 후보자간의 직접 충돌식의 토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시민포럼방식의 토론형식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와 달리 각각의 합동토론회는 한가지의 토론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후보자간의 직접 충돌형의 토론이 공동회견형 토론보다 나은 토론내용을 만들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 토론분석(송종길, 안수근, 2002)에서도 이미 검증되었다. 이제 직접충돌형의 토론형식을 계속 채택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록 개별토론이었지만, 시민포럼형식의 토론회가 우리사회에서도 채택되었다. 갤럽이 토론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포럼형식에 대해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 2002). 앞으로 있을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시민포럼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토론형식에 대한 평가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종길 (2002). 『2002년 민주당·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TV토론 내용분석 연구』,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송종길, 안수근 (2002). 2002년 민주당·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TV토론에서 나타난 토론방식 비교연구. 『방송학보』, 16권 4호 140-173.
- 이종수 (1997). 『선거 TV토론과 시민저널리즘』,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이종수 (2002). 공정선거 TV토론 모델연구, 『공정 선거방송 모델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69-80.
- 한국갤럽 (2002). KBS 대선후보 초청 국민포럼 평가, 내부조사 자료, 한국갤럽

- Carlin, D. P. (2002, 7) Making it Happen: Debate Sponsorship and System, *Communicating the Presidency: Televised Debates and Campaign News Coverage*, Seminar for Communicating the Presidency: Televised Debates and Campaign News Coverage,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 Carlin, D. P., Howard, C., Stanfield, S., & Reynolds, L. (1991). The effects of presidential debate formats on clash: A comparative analysis, *Argumentation and Advocacy*, 27. 126-136.
- Carlin, D. P. & McKinney, M. S. (1994). *The 1992 Presidential Debates in Focus*, Westport, CT: Praeger.
- Ellsworth, J. H. (1965). Rationality and campaigning: A content analysis of the 1960 presidential campaign debate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18, 794-802.
- Friedenberg, R. (1994). The 1992 presidential debates, In R. Denton (ed.). *The 1992 presidential campaign: A communication perspective*. Westport, CT: Praeger, pp. 89-110.
- Friedenberg, R. V.(1997). Pattern and trends in national political debates: 1960-1996. In Friedenber, R. V. (ed.). *Rhetorical studies of National political debates-1996*, Westport, CT: Praeger.
- Holsti, O. R. (1968). Content analysis, in G. Linds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1. MA: Addison-Wesley. 596-692.
- Jamieson, K. H. (1987). Television, presidential campaigns, and debates, In J. Swerdlow (ed.). *Presidential debates: 1988 and beyon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 Kay, J. (1981). Campaign debate formats: The non-presidential level, Paper presented at the Speech Communication. Anaheim, CA.
- Key, J. (1983). Political campaign debates: Reconciling public, media, and candidate needs, Paper presented to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Washington, D.C.
- Kraus, S. (2000).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ublic Policy*. Mahwah: New Jersey. LEA. 송종길 역. (2002). 『텔레비전 대통령후보토론과 공공정책』. 서울: 한울.

- Marrel, M. (1983). *Political Campaign Debates: Image, Strategies, and Tactics*. New York. Longman.
- McNabb, N. (1993). *Approaching Great Debates: An Examination of Format in the 1992 President Deba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entral Michigan University.
- Pfau, M. (1983). Criteria and format to optimize political debates: An analysis of South Dakota's "election80" series. *Journal of the American Forensic Association*, 19. 205-214.
- Prentice, D. B., Larsen, J. K. & Sobnosky, M. J. (1981. 11). The Carter-Reagan debate: A comparison of clash in the dual format.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Anaheim, CA.
- Riley, P., & Hollihan, T. (1981). The 1980 presidential debate: A content analysis of the issues and argument. *Speaker and Gavel*, 18, 47-59.
- Riley, P., & Hollihan, T., & Cooley, D. (1980. 4). The 1976 presidential debate: An analysis of the issues and argum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Central States Speech Association, Chicago, IL.
- Rowland, R. (1986). The substance of the 1980 Carter-Reagan debate. *Southern Speech Communication Journal*, 51, 142-165.
- Song, J. G. (2000). *Culture, Politics and Television: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U.S.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Oklahoma.
- Schroeder, A. (1989). Reforms in presidential debates: A summary of what has been tried and proposed,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Presidential Debates. Washington, DC.
- Swordow, J. L. (1984). *Beyond debate: A paper on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 Twentieth Century Fund (1995). *Let America Decide*.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Press.

(최초투고 2003. 5. 31, 최종원고 제출 2003. 7. 20)

Format Study of 200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Sponsored by Presidential Debate Committee

Song, Jong-Gil

Senior Researcher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This study evaluated the debate formats adopted in the 200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Presidential Debate Committee have sponsored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during the official campaign period. However, it is not easy task for the Committee to coordinate each party's different interests, such as voters, candidates, and broadcasters. Presidential candidates tries to use the debates as one of their campaign strategies. Broadcasters argued limitations in programming and production process. Regardless of the obstacles, voters expect that the committee makes ideal debate formats. The committee adopted two new forms in the 2002 Debates. The committee allowed direct exchange between candidates as well as advance question preparation by candidate. The committee intends that candidates focus on discussing policy issues.

Some studies found that the debate format to allow direct exchange between candidates makes candidates focus on image issues rather than policy issu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The new debate formats adopted in 200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did not guarantee policy issue oriented discussion. The committee or scholars should evaluate the debate formats used in the presidential debates in order to establish ideal debate formats that gives important information for votes to determine their choic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debate formats of former presidential campaign for developing right debate formats.

Key Word: 2002 Presidential Election,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Evaluation of Debate Format